



# 나주에 부는 '클래식 바람'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나주에 전전한 클래식 바람이 불고 있다. 아이와 엄마가 함께 클래식 강좌를 듣고 소박하지만 알찬 하우스 콘서트는 80여회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한 '자녀와 함께 듣는 클래식 아카데미'(이하 클래식 아카데미) 시리즈는 클래식 불모지에 틈을 찌른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시작'(사)문화공동체 무지크 바움(대표 조기홍)이 그 중심에 있다.

지난 6일부터 3기 강좌(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가 진행중인 클래식 아카데미는 일일이 발품을 팔아 준비했다. 무엇보다 인구가 많지 않은터라 수강생을 찾는데 녹록치 않았다. 조 대표는 클래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을 10여차례 만나고 전화통화하며 설득하고 초대하는 과정을 거쳤다. 1기와 2기에는 각각 15가족이 40명이 참여했다.

교육을 진행하는 이는 클래식 매니아 안철씨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클래식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그가 나주에서 클래스를 진행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엄마와 아이들이 강연장에 함께 오고 가면서, 강좌를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린 아이였을 때 무언가를 접목하고 경험하는 것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잘 알고 있어서다.

"제가 아이였을 때 경험했던 것들이 50~6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처럼 어릴 때 겪었던 건 오래 남아 있어요. 강의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천방지축인 아이들도 많아요. 어른 눈높이로 보면 만족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며 변화를 보이는 걸 보면 반갑죠. 광주에서도 아이와 엄마가 함께 참여하는 강좌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나주에 전전한 클래식 바람이 불고 있다. (사)무지크 바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우스 콘서트에 출연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상균 공연 모습.

## '자녀와 함께 듣는 클래식 아카데미' 3기 강좌 진행 중 '하우스 콘서트' 88회 열려 ... 12일 '박수용 재즈 콰텟' 공연 나주학생독립운동 헌정 음악회·나주현대음악제까지

보면 반갑죠. 광주에서도 아이와 엄마가 함께 참여하는 강좌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10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강좌는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감상곡과 뮤지컬, 디즈니 애니메이션 등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연주, 무용, 풍경 등 친숙한 영상 자료로 감상하고 어린이 연주와 어린이 합창단을 듣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하이든 '놀람 교향곡',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등이 주 감상곡이다. 또 직접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호응이 좋아 조만간 중급반과 고급반도 개설할 계획이다.

매달 한두차례씩 진행되는 하우스 콘서트는 88회째를 진행 중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 콘서트, 피아노로 듣는 동화 이야기 '동물의 사육제', 플루티스트 이현경 연주회, 이유신의 트럼펫 이야기, 서현일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 등이 진행됐다.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나주 금성관 커피숍 예가체프 2층 안성현 음악홀에서 열리는 공연은 '박수용 재즈 콰텟'의 무대다. 불멸의 재즈 뮤지션 찰리 파커 헌정 공연으로 강윤숙·김하성·김민호·김은영씨 등이 함께한다.

그밖에 나주학생독립운동 헌정 음악회와 나주현대음악제도 무지크바움의 대표 행사다.

무지크바움은 사업가인 조기홍씨와 작곡가 김선철씨 등이 함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도현 시인, 임나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이 이사로 참여했다.

"지방은 문화적으로 소외돼 있습니다. 도시에서 생산한 문화를 소비하는 구조입니다. 문화예술은 환경적 요인이 중요해요.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문화공간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문화 현장의 감동은 서열도 없고 평등합니다."

조기홍 대표는 "무지크 바움의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지 에너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cafe.daum.net/najumusikbaum. 문의 010-6422-199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홍성담 그림 '김기종의 칼질' 논란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상황 묘사해 전시  
서울시립미술관, 향의 잇따르자 내리기로

서울시립미술관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상황을 묘사한 홍성담 작가의 '김기종의 칼질'과 관련, 8일 논란이 일자 결국 그림을 전시장에서 내리기로 했다.



논란이 된 홍성담 작 '김기종의 칼질'

홍경환 총감독은 "이번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에 총 24명(팀)의 작품 140여점이 출품됐는데 이 중 한 작품으로 인해 다른 작가의 작품마저도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 목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다양한 작가의 작품세계를 보호해야 하기에 작품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 작가도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됐다'면서 '논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해하는 행위를 옹호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기종의 칼질'은 남성이 양복을 입은 남성의 넥타이를 당기고 한쪽 손으로는 칼을 겨누는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테이블 위에는 "김기종이는 2015년 3월 모월모시에 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주한미국대사 리퍼트에게 칼질을 했다"는 말이 적혀있다. 그는 "조선정략의 괴수인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쏘 죽인 안중근 의사도 역시 우리민족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이었을 것이다"라며 "대부분 사람들은 조선에게 형님의 나라인 일본의 훌륭한 정치인을 죽인 강해도적쯤으로 폄하했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그 사건을 옹호한 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작품을 제작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애꾸눈 광대' 민주화 위해 몸 던지다

11·12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베에로 분장을 한 주인공의 인생역정이 만만찮다. 관객들은 19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떠올리고 국가폭력과 인간, 삶의 문제를 성찰하게 된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은 5·18민주화운동 현장에서 한쪽 눈을 잃었던 이지현씨의 3인극 연극 '애꾸눈 광대'를 오는 11~12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올 하반기에 모두 16회까지 진행되는 공연의 첫 무대다.

연출은 양태훈 극단 열·아리 대표가 맡았으며 극중에서 남자역은 김종필 극단 연인 대표, 여인역은 연극인 정경애씨가 새롭게 배역을 맡았다.

'애꾸눈 광대'는 주인공 이지현씨가 계엄군의 폭력으로 한쪽 눈을 잃게 되면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간다. 주인공은 살아남았다는 부채의식으로 5월 진상규명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온 몸을 던진다. 결국, 가정은 파탄나고 주인공은 가출한 아들을 찾아 광대가 돼 전국을 떠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반기 공연은 상설공연 6회, 찾아가는 공연 10회 등 총16회 진행된다. 상설공연 6회는 9월 11~12일, 10월 19~20일, 11월 23~24일 평일 오후 7시30분, 주말 오후 5시30분에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무대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무료공연, 사전예약 가능. 문의 062-670-792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헤리티지 앙상블, 찾아가는 자선음악회

내일 전남대학교 예향홀

국내 대표 실내악단 헤리티지 앙상블(사)이 광주에서 찾아가는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10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학교 예향홀.

광주 중경 기업 오성정보통신과 헤리티지 앙상블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전석 초대 공연이다.

지난 2011년 창단된 헤리티지 앙상블은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전을 중심으로 한국 예술종합학교 출신 연주자들이 구성된 그룹

이다. 지난해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전윤일 씨를 영입하고 단원들을 보강하면서 챔버 오케스트라 규모로 조직을 재정비했다.

레퍼토리는 엘가의 '아침의 노래', '밤의 노래', 바흐의 '3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 브리튼의 '스트링 오케스트라를 위한 심플 심포니'다. 또 전남대 작곡가 정현수 교수의 작품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합주 협주곡 '기대'를 초연한다. 피아노 협연자는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문현욱, 박은식, 신수경씨다. 문의 02-511-1920. /김미은기자 mekim@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길 63년

先報 先州日報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무인텔 부지매매 토지 직거래

건축 허가 즉시 가능

상업지역 총 3필지 각 1필지당 220평(730㎡)

총 660평 (2,181㎡)

주인 직매 010-5450-1172

근조화환3단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축하화환3단 결혼, 고회, 전시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0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12,500원	8,500원	5,000원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